# BMW CEO 만난 이재용 "배터리 동맹 강화"

삼성SDI 배터리 주행거리 극대화 뉴 i7 등 최신 전기차에 'P5' 탑재 13년째 긴밀 협력, 파트너십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BMW 경영 진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 기로 했다. 이 회장은 17일 인천 영종도 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 리버 집세 최고경영자(CEO) 등 BMW 경영진들과 만났다.

### ● 'P5' 배터리 적용 확대

이 회장과 올리버 집세 CEO는 BMW 최신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SDI의 'P 5' 배터리를 포함해 양사 간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 에는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필립 파 랑 BMW 수석 부사장, 한상윤 BMW코 리아 사장 등도 배석했다.

이 회장은 BMW 경영진 미팅에 앞서 P5 배터리셀이 적용된 BMW의 최신 플 래그십 전기차 '뉴 i7'과 BMW 드라이빙 센터를 살펴봤다. P5 배터리는 전기차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SDI 의 최첨단 소재 기술을 집대성한 제품이 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20% 높이고 재료비는 20% 이상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니켈 함량 88%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했다. BMW는 차량 성능 향상을 위해 뉴 i7 외에 iX, i4 등 최신 전기차 기종에도 P5 배터리셀을 적용했다.



BMW의 최신 전기차 '뉴 i7'을 살펴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사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올리버 집세 회장은 "전동화에 있어 삼 성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며 "삼성 경영진이 우리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새로운 BMW i7와 함께 하는 것 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 고 말했다.

## ●이 회장이 협력 주도

삼성은 BMW와 13년 동안 긴밀한 협 이 회장은 "BMW와 함께 할 수 있어 역을 지속해 왔다. 양시는 2009년 전기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 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중심의 협력을 시작했 다. 특히 이 회장은 협력 초기 단계부터 BMW 경영진과 교류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사 간 전기차 협력 강화를 주 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도했다.

> 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전기차를 지속 적으로 탄생시키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 최초의 순수 전기차 i3를 시작으로, i 중이다. 8(2015년). iX·i4(2021년) 등 BMW가

출시하는 친환경 전기차에는 삼성SDI 의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다. 2014년에는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차세대 소재 등 전기차 기술 공동 개발

삼성SDI는 2019년 BMW와 자동차 삼성과 BMW는 이후 상호 신뢰를 바 전지 공급을 위한 약 4조 원 규모의 장 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BMW 차량 판매 호조에 따 를 앞당겨 왔다. 2013년 출시된 BMW 라 양사는 공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연말 대목 시즌 잡아라" e커머스 대규모 할인전

*스로≿동*아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15** 

ΙΤ

주요 전자상거래(e커머스) 서비스들이 연말 대목 시 즌을 맞아 할인 행사를 벌인다.

G마켓은 25일까지 '소중한 일상의 기쁨: 크리스마스 편' 프로모션을 연다. 각종 선물, 파티용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한다. G마켓과 옥션이 동시 진행하는 이 번 행사는 아이선물관, 어른선물관, 장식·푸드관 등 3개 테마관을 마련하고, 1500여개 상품을 특가에 선보인다.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 지로 상품을 바로 보낼 수 있다. 매일 5개씩 '오늘의 특 가'도 선보인다. 브랜드사, 판매자와 제휴를 통해 파격 할인가에 마련했다. 선물 고르기가 고민인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코너다. 할인 쿠폰도 다양하다. '장난감·유아 동패션 10%쿠폰'은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되고 매일 3회 씩 제공한다.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되는 '크리스마스 10%쿠폰'과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되는 '디지털·가전 7%쿠폰'은 행사 기간 내 총 2회씩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간편결제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NH농협·롯데·BC카 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 최대 3만 원까지 할 인된다.

티몬은 19일부터 5일 동안 '몬스터감사제' 프로모션 을 연다. 50% 할인에 추가할인까지 더한 혜택을 제공한 다. 23일까지 매일 오후 12시 최대 50% 혜택의 '정오쿠 폰'을 선착순 발급하고. 매일 최대 10% 할인의 '감사쿠 폰'을 무제한 지급한다. 또 '카카오페이 10% 즉시 할인' 도 마련했다.

11번가는 22일까지 '해-삐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 한다. 파티용품과 디지털·명품·리빙 등 선물, 밀키트와 간편식 등 푸드, 패션잡화, 장난감, 여행·공연티켓 등 총 6개 테마 내 1000여 개 상품을 모아 판매한다.

# KT, 사고 방지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 제주도서 실증

마이크로웍스·지바이크 등과 협약 위험상황 자동 감속, 불법주차 감지 내년 1월부터 3개월 가량 실증 진행

KT는 제주도, 마이크로웍스. 지바이크 와 함께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능형사물인터넷 (AIoT)을 탑재한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 와 이를 통합 관제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제주도에서 실증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같은 공 유 모빌리티가 도심 속 주요 이동 수단으 로 부상했다. 하지만 탑승자 안전과 기기 방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능형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보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이영준 KT 충남충북법인고객본부장, 김성하 지바이크 CFO(이사), 이상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장, 김용남 마이크로웍스 대표.(왼쪽부터) 사진제공 | KT

완하기 위해 2개의 카메라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탑재된다. 여기에 영상 인공지능이 더해져 주변 환경을 분석 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보행자 추돌. 차량 근접과 같 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려 할 때 모빌리티를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이다. 반납 시에는 AIoT가 주차 지역의 소화전이

나 횡단보도 등을 인식해 사용자가 올바른 반납 장소에 기기를 바르게 세워 뒀는지 판 단한다. 불법주차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패널티와 리워드도 부과할 수 있다.

KT는 클라우드와 IoT 통신 회선을 제공 한다. 마이크로웍스는 모빌리티용 AIoT 관제 디바이스와 영상 관제 플랫폼을 구축 한다. 지바이크는 AIoT가 탑재되는 전동 킥보드를 자체 제작한다. 제주도는 기술 실증 무대로서 실증 정보 분석과 기존 대 중교통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실증은 제주시에서 내년 1월부터 3개월 가량 진행 예정이다. 테스터로 직원과 거 주민. 관광객들을 고루 섭외해 다양한 피 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12월 19일 (월) 음력: 11월 2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김명근 기자

## LGU+, 업계 첫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 3사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LG 유플러스는 정보보안(ISO27001), 환경경영(ISO 14001), 안전보건(ISO45001)에 이어 컴플라이언스 분 야에서도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면서 ESG 경영 기조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증은 글로벌 인증 전 문기관 BSI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LG유플러스는 심 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 공정거래, 정보보호, 안전보 건, 인사노무, 반부패, 지식재산권, 기업지배구조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 받았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호랑이 호랑이 8 행운색:흰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노랑 토끼 쥐 뱀 길방:북 길방:북 길방:남 길방:서 길방:남 길방:중앙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 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 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 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 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 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 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 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 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 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 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 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 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 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 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 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 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수 있다. 취업시험 합격과 먼 곳 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음주가무 가지고 나아가라. 과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아온다. 쥐띠와 상의하라. 하라. 를 피하라. 하겠다. **%** 개 **ি** ও 행운색:청색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행운색:노랑 생물 돼지 원숭이 길방:중앙 길방:남 길방:서 길방:동 길방:북 길방:남 무슨 일에나 자신감이 충만하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좌충 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온 다. 매사 일희일비 하다보면 사 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 우돌하다가는 뜻대로 되지 않 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 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 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 는 수 가 많다. 애매한 전망으로 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 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 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 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 은 바랄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 교제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침 아가면 상대가 움츠려든다. 팬 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 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 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 착한 자세로 머리를 써라. 운전 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 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 이다. 한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중 신호위반에 걸릴 수도 있다. 는 날이다. 돼지띠가 귀인이다.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지 말라.

| 人至为   | 농동아        | The spo       | rtsdonga             |             | 제39        | 73호         |
|---|------------|---------------|----------------------|-------------|------------|-------------|
| 발행인·편집역   | 인 이인철      | 편집국장 연제화      | 호 사업총괄               | 김상수         | 광고국장       | 이승욱         |
| 편집부장<br>산업경제부장                                  | 안도영<br>양형모 | 스포츠부장<br>사진부장 | 정재우<br>고종철           | 엔터테인(<br>인쇄 |            | 이정연<br>아일보시 |
| 광고문의  | 02-361-161 | 2 구독신청        | 1588-2020            | FAX         | 02-361-    | 1617        |
|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            |               |                      |             |            |             |
|   | 2008년      | 3월 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b>-</b> 00131호 | 〈일간〉 200    | 08년 3월 24일 | 일 창간        |
| 본지는 신   | 문윤리강령 및 그  | 1 실천 요강을 준수   | 합니다. 구독료             | . : 한달 12,  | 000원, 1부   | 700원        |
| 대표전화  | 02-361-161 | 0 제보·트        | 투고 02-361-           | 1616 sc     | ol@donga.  | com         |